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아는 순간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다.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면 아는 체하는 행동을 그만 둔다. 문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데서 교만과 나쁜 행실이 나오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른다. 어리석음을 고치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짓을 고치려 한다. 교만한 생각을 버리려 하지 않고 겸손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아는 체하려고 한다.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한두 번은 그런 행동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지독히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있었다. 언제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에서 그녀는 어떤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가게에서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판다고 하는게 아닌가. 여인은 너무 좋아서 최고의 행복을 사서 다시는 불행해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사랑과 평화, 지혜와 행복, 그리고 온갖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는 물건을 주세요”
이 말을 들은 주인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부인, 뭔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우리 가게는 열매를 파는게 아니라 씨앗만 팔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도 없이 행복을 찾고 좋은 열매를 구하고 다닌다. 하지만 행복이나 좋은 열매는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좋은 씨앗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는 이 점을 명확히 가르쳤다. 나무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마태복음 7:17,18)

결과가 중요시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질은 잊은 채 끝이나 결과만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짙다. 그리하여 어리석게도 엉성키이면서 포도열매를 맺으려 애쓴다. 가시나무이면서 무화과 열매를 맺으려 애쓴다. 문제는 열매에 있는게 아니라 나무에 있다는 걸 자꾸만 잊어버린다.

그 나무에 그 열매다. 그 열매는 그 나무에서만 열린다. 열매는 개혁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나무를 개혁하려고 애써야 한다. 문제는 성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이다. 바른 존재는 바른 행동을 낳는다. 잘 자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놓는 것과 이치는 같다. 문제는 사람이다. 겉이 아니라 속이다. 사람이 바뀌어야 좋은 행동이 나온다.

‘하나님 바라기’에서 내용 발췌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